

북한 도로 현황 및 시사점

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
김혜진 (khj785@kdb.co.kr)

- ◆ 북한 도로는 서해안, 동해안 등 크게 5개 축으로 건설되었으며, '19년말 총 연장 26,180km로 한국의 23.5% 수준이며 중국과 신압록강대교 등 접경지역 도로개발 추진
- ◆ 경제특구·개발구 등 지역 경제개발계획과의 연계성, 국제 도로망과의 연결성 등을 반영한 중장기 도로개발 로드맵 마련 필요

□ 도로는 경제·문화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법으로 명시

- 도로법에서 '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척도', 도시경영법에서 '도시의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척도'로 규정

□ 도로망은 크게 5개 축을 중심으로 분포, '19년말 총 연장 26,180km로 한국의 23.5% 수준이며 간선도로 대부분 도시·산업지대에 해안선을 따라 건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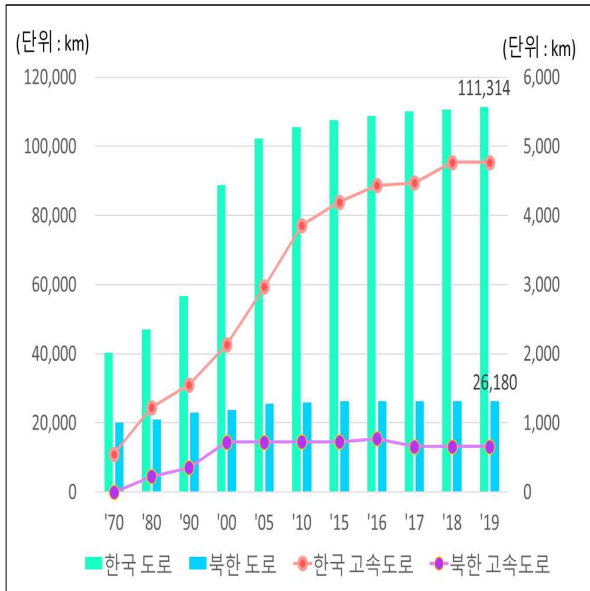
- 서해안과 동해안을 주요축으로 동서연결축, 자원개발·수송을 위한 북부내륙축, 중국·러시아와의 국경지역을 연결하는 동서국경축으로 구성

북한의 주요 도로망 현황



자료 : 필자 작성

남북한 도로 및 고속도로 연장 동향



자료 : 통계청 등

- 서해안축은 개성~평양~정주~신의주 노선 등이 있고 서부지역 공업지구와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, 개성~안주까지는 고속도로로 시설이 양호
 - 동해안축은 고성~함흥~청진~온성 노선 등이 있으며 금강산 지역, 나선 등을 경유하여 중국·러시아와 연결 가능하여 경제적, 군사적 특징이 강한 노선임
 - 동서연결축 주요 구간은 남포~평양~원산이며 경제적·전략적으로 중요한 노선이나 중앙에 낭림산맥이 관통하고 있어 도로가 협소하고 구배가 심함
 - 북부내륙축 노선은 신북청~갑산~혜산 노선 등이 있으며 자원개발을 위해 건설
 - 동서국경축은 압록강, 두만강을 따라 북부의 동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대부분 비포장
- 도로관리사업의 효율화 등을 위해 고속도로, 1~6급 도로로 등급 분류
 - 고속도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노선이 구축되어 있으며 총 6개 노선*, 총 연장 658km로 한국 4,767km 대비 13.8% 수준
 - * 평양~개성, 평양~남포(청년영웅도로), 평양~향산, 평양~원산, 평양~강동, 원산~금강산
 -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포장율은 10% 미만이고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이하에 불과
 - 유통부족, 낮은 자동차 보급률, 주민 이동통제 등으로 도로 수송분담률은 여객 24.9%, 화물 6.1% 비중
 - 도로는 초기 단거리 운송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철도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0년 이후 도로 수송의 중요성 부각

□ 북·중국간 접경지역 도로개발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나, 북·러시아간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

- 북·중국간에는 신의주, 만포, 원정리 등 총 13곳에 접경지역 연계도로망이 있음
 - 신압록강대교(신의주~단둥)는 4차선 왕복 도로로 '14년 완공되었지만 북한 지역 도로공사 미완으로 개통이 지연되었으나 '20년 아스팔트 공사 재개
 - 만포~집안 도로교량은 고급 세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'16년 완공되었으나 유엔 대북제재, 경색된 북·중관계로 개통이 연기되었으나 '19년 정식 통관업무 시작
- 북·러시아간에는 두만강리~하산 철교(북러 친선교)가 유일한 국제통로 역할을 하며 직접 연결 도로는 없는 실정임
 - '19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하산역과 북한 두만강역을 연결하는 도로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해 논의만 진행

신압록강대교 전경



자료 : 연합뉴스(2014.10.31자), "북~중 신압록강대교, 개통 무기한 연기"

신압록강대교와 연결된 북한 지역 도로공사



자료 : 동아일보(2020.5.4.자), "신압록강대교 6년만에 개통 가속화"

□ 북한 도로 개발은 향후 대북제재 완화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별 경제개발계획과의 연계성, 한반도 통합 간선도로망 구축 및 국제 도로망과의 연결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

-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 가능
 - 위원공업개발구, 경원경제개발구, 무봉국제관광특구 등 27개 경제특구·개발구와 연계한 도로개발로 지역 경제발전 견인
- 남북한 단절도로 복원으로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통합 간선도로망 구축 필요
 -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한 고속도로 건설은 한반도 1일 생활권을 가능하게 하고 물류수송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
 - 향후 북한고속도로와 연결 가능한 한국 고속도로 건설계획노선으로 영종~강화, 서울~연천, 춘천~철원 등이 있음
- 대륙과의 연계를 위해 국제도로망과 연결되는 신규 도로 건설 및 기존 도로의 선형개선, 포장·확장, 안전시설 확충 등 현대화 사업 추진 필요
 - 국제적 물류망 확장을 위해 북한지역을 경유하는 AH1, AH6 구간* 현대화사업에 대외 협력사업 추진방안 강구

* AH(Asian Highway)1은 평양, 신의주 등을 거쳐 중국과, AH6는 원산, 선봉 등을 거쳐 러시아와 연결